KiRi Weekly 2016.3.21.
이슈 분석

1인 가구 증가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?

임태준 연구위원, 김세중 연구위원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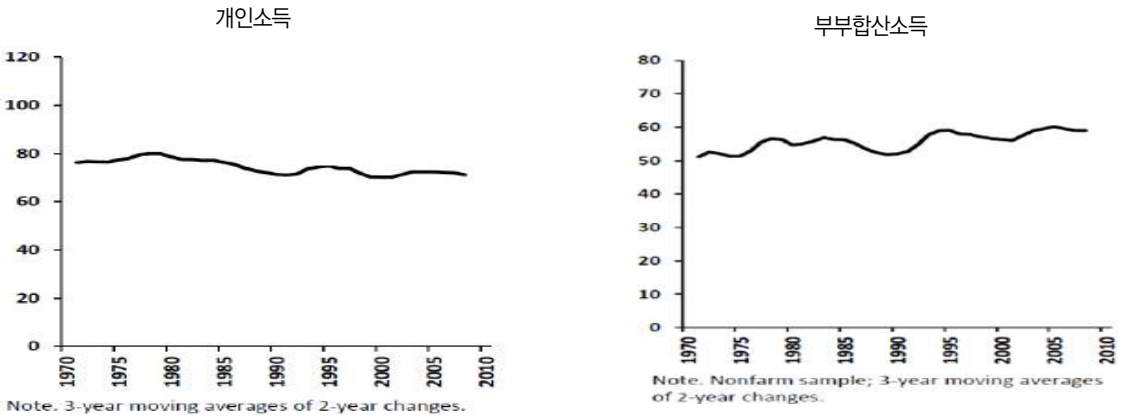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보험가입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줌.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, 보험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는 달리, 오히려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.

-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의 보험 가입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보험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  - 2000년 15.6%에 불과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.1%로 급증하였으며,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 34.3%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.[1)]
    - 특히, 20~30대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8.1%에서 2015년 39.6%로 급증하였으며, 2035년에는 51.0%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.

- 이러한 우려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음.
  - 최근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.[2)]
  - 다인 가구의 부부 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풀링(pooling)하여 측정한 개인의 소득변동성은 다인 가구의 부부합산소득의 변동성에 비해 현저히 높음(〈그림 1〉 참조).

1) 김세중 · 김유미(2016. 2. 22), 「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」, 『KiRi Weekly』, 제372호, 보험연구원.
2) Ziliak, J.-P., B. Hardy, and C. Bollinger(2011), *Earnings Volatility in America: Evidence from Matched CPS*, working paper; Dynan, K., D. Elmendorf, and D. Sichel(2012), *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*, working paper.

〈그림 1〉 소득변동성: 개인소득 vs. 부부합산소득



주: 가로축은 연도, 세로축은 소득변동성(연간소득변화율의 횡단면(cross-sectional) 표준편차로 측정)을 나타냄.
자료: Dynan et al.(2012), The Evolution of Household Income Volatility, working paper.

-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, 소득변동성이 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향후의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높은 저축 및 보험가입동기를 가질 수 있음.
  - 합리적인 개인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활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, 이를 소비의 평탄화(consumption smoothing)라 함.
  - 이에 따르면 소득 감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1인 가구는 소득 감소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과 보험 가입의 유인이 높음.

- 따라서,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.
  - 두 명의 남녀가 각각 1인 가구를 이루었을 경우와 동일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 1인당 저축 및 보험수요를 비교한다면 전자가 더 높음.
  -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변동성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, 이는 경제 전체의 저축 및 보험수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. kiri